



제2편 역사 歷史

제1장 상고사 上古史

제1절 선사시대 때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인류문화의 시원부터 시작해 1만년전 무렵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문화의 원초단계 시기를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라고 한다.¹⁾ 다시 말하면 인류가 불을 처음 이용하고 돌을 깨뜨려 만든 뎀석기와 나무나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한 시기가 구석기시대이다. 한반도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²⁾ 이 시기 초기의 도구는 거칠게 가공되었으나 점차 다양하고 세분된 기능을 가진 정교한 도구들로 분화하고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규암(珪巖)이나 응회암(凝灰巖) 등 거친 재질의 암석으로 만든 대형석기가 주도하다가 후기로 가면서 점차 석기가 소형화되면서 격지석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석기인들은 수렵(狩獵)과 채집생활(採集生活)을 영위하면서 식량이 풍부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여 주로 크고 작은 강가나 동굴에서 거주하였다.

언제부터 장수군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는가를 추정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구석기유적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그 상한은 기원전 1~2만년 전후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

- 1) 한국고고학회, 2007, 『한국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 2) 長水郡 1997, 『長水郡誌』

계남 침곡리 구석기유적



3) 이형우·안효성·이창승·송은영, 2007, 『장수 침곡리 구석기유적』, 전북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4) 이기길·윤정국, 2005,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2002년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에 자리한 계남면 침곡리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54 점의 구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법화산(法華山)에서 계남천(溪南川)까지 뻗은 구릉지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3년 발굴조사³⁾에서 굽개·밀개·뚜르개·찌르개·슴베찌르개 등 838 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기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몸돌 10점, 몸돌석기 1점, 격지석기 40점, 이형석기 6점, 돌날 40점, 격지 273점, 부스러기 468점이다. 이 유적은 전체 유물 중 격지와 부스러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석기를 제작하던 장소로 추정되었다.

금강 상류지역인 진안천(鎭安川)과 정자천(程子川) 유역에서도 격지·굽개·몸돌 등 구석기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진안 진그늘 유적⁴⁾은 전북에서 최초로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진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20여 개소의 석기제작소와 화덕자리, 여러 가지 석기와 함께 몸돌과 격지·돌날·좁돌날·부스러기·조각돌 등 구석기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슴베찌르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곳은 특정 철마다 찾아와서 주로 사냥용 연장을 만들고 잡은 짐승을 처리하던 사냥캠프로 추정되었다. 특히 슴베찌르개는 공주 석장리를 비롯하여 대전 용호동, 남한강 유역의 단양 수양개·금굴, 섬진강의 순천 월평·죽내리, 낙동강의 밀양 고례리 유적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는 1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본격적인 농경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탈바꿈하면서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유적이 등장하고 토기의 발명, 마제석기의 출현 등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 활동과 함께 부분적인 농사를 지었던 신석기인들은 실로 짠 옷감이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꾸미개로 몸을 치장하였다. 최근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약 1만 년 전의 토기편이 확인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토기의 출현 연대가 더 올라가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움집(竈穴住居)으로 먼저 구덩이를 파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갈대나 이엉 등으로 엮은 지붕을 얹은 형태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처음에 원형이나 방형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에는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일본 열도, 연해주 등 주변지역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⁵⁾와 천천면 월곡리⁶⁾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전자는 1996년 남원농지개량조합에서 천천면 남양리 일대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중 구연부 하단에 2줄의 압인문(押印文)이 둘러진 빗살무늬토기편과 석제 방추차(紡錘車)가 수습되었다. 후자는 1999년 장척2지구 경지정리사업지역인 천천면 월곡리 반월마을 입구 들판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당시 수습된 토기편들은 직립된 것과 약간 외반된 것으로 구분되며, 문양은 집선문과 사격자문, 짧게 빗금을 그은 것과 구연부 상단에 점열로 찍은 것 등이 있다. 장수군 북쪽에 자리한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이 상당수 조사되어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예컨대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승금⁷⁾·안자동⁸⁾, 상전면 용평리 운암⁹⁾, 정천면 갈용리 갈머리¹⁰⁾·농산¹¹⁾ 모정리 진그늘¹²⁾·여의곡¹³⁾ 유적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대체로 하천변의 들판과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⁴⁾ 그것은 농경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계양식을 통한 안정된 정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¹⁵⁾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유물은 정주형 주거지보다 화덕자리 혹은 집석유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편이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금강상류지역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구와 유물의 속성은 금강과 섬진강, 영

5)尹德香, 2000, 『南陽里』發掘調査報告書, 全羅北道 長水郡·全北大學校博物館

6)윤덕향·강원중, 2001, 『장수 월곡리 장척 2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장수 월곡리 유적』, 『유적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7)윤덕향·박영민·김진, 2001, 『勝金 遺蹟』,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全北大學校 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8)김승옥·이종철·김은정, 2001, 『顔子洞 遺蹟』,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全北大學校 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9)윤덕향·이상균, 2001, 『雲岩 遺蹟』,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全北大學校 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10)李永德, 2001, 『鎮安 갈머리(葛頭)遺蹟 發掘調査 概報』, 『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 34,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11)金承玉·李宗哲·金垠井, 2001,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X 農山遺蹟』, 全北大學校 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12)김은정·김선주, 2001, 『진안 진그늘 신석기유적』, 『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호남고고학회

13)金承玉·李宗哲, 2001,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VIII 如意谷遺蹟』, 全北大學校 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14)李相均, 1998, 『湖南地域 新石器文化의 樣相과 對外交流』,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湖南考古學會

15)宋銀淑, 1998, 『湖南 內陸地域 新石器文化에 대한 考察』,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湖南考古學會

남지방의 서부 내륙지역 출토품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¹⁶⁾ 그렇다면 장수군을 통과하는 내륙 교통로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구석기시대 이래로 줄곧 교류와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장수군에 자리한 육십령(六十嶺)과 월성치(月城峙)·중치(中峙)·치재·사치재 등이 백두대간(白頭大幹) 산줄기 양쪽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들이 서로 교류하는데 중요한 관문으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농경생활의 시작, 마제석기의 본격적인 사용, 사회복합도의 증가가 한층 뚜렷해진다. 더욱이 토기의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무문토기가 주종을 이루어 이 시기를 달리 ‘무문토기시대’라고도 불린다. 이 시기의 매장풍습으로는 지석묘(支石墓)와 석관묘(石棺墓)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옹관묘(甕棺墓)와 토광묘(土壙墓)가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지석묘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골고루 자리하고 있으면서 호남지방에서 한층 밀집 분포되어 있다. 지석묘는 하나만 있는 경우도 간혹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기 내지 수십 기씩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석묘의 상석은 정연하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주변의 하천 혹은 산줄기의 방향과 평행하게 장축방향을 두고 있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지석묘는 지상에 드러난 상석의 외형을 기준으로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뉜다.¹⁷⁾

우선 북방식 지석묘는 지상에다 4매의 판자모양 돌로 시신을 안치하는 석관모양의 매장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판자모양의 상석을 올려놓은 것을 말한다. 지석묘의 외형이 마치 탁자와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달리 ‘탁자식(卓子式) 지석묘’라고도 부른다. 전북지역은 장수 삼봉리¹⁸⁾, 고창 도산리¹⁹⁾에서 한 기씩의 전형적인 북방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남방식 지석묘는 지하에 시신과 유물을 안치하는 석관이나 석곽 등의 매장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큰 상석을 올려놓아 축조된 형식을 말한다. 그리고 상석을 어떻게 올려놓았는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이를테면 상석이 몇 개의 작은 받침돌로 고여 있는 것은 ‘기반식(碁盤

16) 安承模·李永德, 2004, 『龍潭권 水沒地區의 新石器文化』-鎮安 갈마리遺蹟을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13, 湖南考古學會.

17)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18) 全榮來, 1979, 『長水, 三峰里 北方式 支石墓』, 『全北遺蹟調査報告』 第10輯, 全州市立博物館.

19)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5, 『高敞郡 文化遺蹟 分布地圖』, 高敞郡.

式) 지석묘'라 부르고, 특별한 시설이 없이 상석이 직접 땅위에 얹혀 있는 것은 '개석식(蓋石式) 지석묘'라고 부른다. 이러한 두 가지 형식의 지석묘가 우리나라의 북쪽보다는 주로 남쪽 지방에 많이 분포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남방식 지석묘'라고 부른다.

그 동안 지표조사를 통해, 장수군에 는 청동기시대 상징적인 묘제로 알려진 지석묘가 대략 20여개소에서 140여 기 정도 있었던 것²⁰⁾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시작된 농지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지석묘가 유실되고, 현재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탁자식 지석묘를 비롯하여 대략 10여 기 정도만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²¹⁾ 이 지석묘들은 주로 하천변에 발달한 들판이나 내륙 교통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밀집된 분포양상을 보였다. 예컨대 금강의 지류인 장수천(長水川)·장계천(長溪川)·구량천(九良川)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장계천을 따라 교통로가 지나가는 장계면 삼봉리와 계남면 침곡리 일대에 한층 밀집되어 있다. 특히 섬진강 지류인 오수천 유역은 장수군에서도 지석묘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장수군에 분포된 지석묘는 들판·구릉지·산기슭 등에 자리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1979년 탁자식으로 학계에 보고된 장계면 삼봉리 지석묘²²⁾를 제외하면, 다른 지석묘는 모두 기반식 혹은 개석식으로 상석의 모양이나 그 크기에서도 강한 지역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수 삼봉리 지석묘는 장계분지 동남쪽에 자리한다. 장계면 소재지에서 국도를 따라 육십령 방면으로 500m 가량 떨어진 노평들판 중앙부에 있다. 이 지석묘는 바닥에 2매의 대형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장방형의 상석을 올려놓아 거의 탁자처럼 보인다. 상석의 장축 방향은 장계분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장계천과 평행되게 동서(東



장계 삼봉리 지석묘

20) 全北郷土文化研究會, 1988, 『長水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全羅北道·長水郡

21)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長水郡의 文化遺蹟』, 長水郡·全羅北道.

22) 全榮來, 1979, 앞의 논문.

西)로 두었으며, 상석의 크기는 장축 300cm, 단축 150cm, 두께 75cm 이다. 이 일대에는 장계천을 따라 펼쳐진 들판에 36기의 지석묘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²³⁾, 70년대부터 시작된 농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부분 유실되고, 지금은 1기의 북방식 지석묘만 원상대로 보존되어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장수군에서 지석묘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산서분지이다. 이곳은 본래 남원군에 속했던 곳으로 1906년 대한제국의 행정구역 개편 때 장수군으로 편입되었지만, 지금도 일상 생활권이 장수보다 남원에 가깝다. 섬진강 유역에 속한 산서분지(山西盆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오수천(鰲樹川)을 따라 들판과 구릉지가 매우 발달한 곳으로 행정 구역상으로는 장수군 산서면에 속한다. 그리고 섬진강과 영산강 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의 자고개[尺峙]를 넘어 장수분지 등 진안고원(鎭安高原)으로 이어지는 간선 교통로가 이곳을 통과한다. 이 교통로가 통과하는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백운리·마하리 일대에 지석묘가 밀집 분포되어 있었는데²⁴⁾, 지금은 농지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부분 유실되고 그 일부만 남아있다.

2003년 장수 침곡리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²⁵⁾ 계남면 침곡리 고기마을에서 서남쪽으로 300m 가량 떨어진 민묘구역 내에 1기의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석묘는 거의 병거지처럼 생긴 괴석형 상석 아래에 할석과 천석을 가지고 장방형으로 구획된 묘역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23) 長水郡 1997, 앞의 책.

24) 全北鄕土文化研究會, 1988, 앞의 책.

25)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8, 『장수 침곡리 마무산 유적』, 장수군.

묘역시설은 장방형의 석재를 가로쌓기 방식으로 바깥면을 가지런히 맞추고 석렬(石列)이 경사면을 따라 흐트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3단 높이로 쌓았다. 묘역시설의 중앙부에는 10~20cm 가량의 작은 할석으로 가지런히 메웠으며, 이 할석의 가장자리에는 상석을 받친 2매의 지석(支石)이 있다. 소형 할석을 제거하자 크기가 다른 10매의 판상형 할석의 귀를 정연하게 맞추어 놓은 장방형 유구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제거하였지만 매장주체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소형 할석 유구의 중앙에서 거꾸로 박힌 상태로 1점의 석부(石斧)가 출토되었다.

장수군과 인접된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구곡·안지동²⁶⁾·수좌동²⁷⁾·승금²⁸⁾·풍암²⁹⁾,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모곡³⁰⁾·여의곡³¹⁾·망덕³²⁾ 등 여러 곳에서 200여 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섬진강 상류지역에 속한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에서도 1기의 지석묘³³⁾가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진안고원 일대이다. 그런가 하면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과 모실 유적에서는 지석묘가 석관묘와 함께 동일 유적에서 조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 지석묘들은 외곽에 타원형·장방형·방형의 묘역을 구획한 다음, 그 중앙에는 지하식 혹은 지상식의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를 갖추어 놓았다. 종래에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지석묘가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인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 등 황강 유역에서 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가 법화산 동북쪽 경사면 하단부인 계남면 침곡리³⁴⁾에서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3기의 주거지는 그 평면형태가 원형 혹은 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유물은 퇴화된 송국리형토기와 석창이 출토되었

26) 李在烈, 1997, 「진안 顔川面一帶 支石墓」, 『湖南地域 古墳의 内部構造』, 湖南考古學會.

27) 申大坤·金圭東, 2001, 「진안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Ⅲ」, 國立全州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28) 윤덕향·박영민·김진, 2001, 앞의 책.

29) 김승옥·이종철·김은정, 2001, 앞의 책.

30) 김승옥·이종철·조희진, 2001, 「慕谷 遺蹟」, 『진안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Ⅲ』, 全北大學校 博物館·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31) 金承玉·李宗哲, 2001, 앞의 책.

3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X 망덕유적」,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33) 郭長根·韓修英·趙仁振, 1998, 「진안 平地리 古墳群」, 財團法人 百濟文化開發研究院·群山大學校 博物館.

34)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6, 「장수 침곡리 유적」, 한국도로공사.

다.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수좌동³⁵⁾,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농산³⁶⁾과 모정리 여의곡 유적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진안 농산 유적에서는 평면형태가 원형 혹은 장방형을 띠는 주거지와 수혈유구(竪穴遺構), 여의곡에서도 송국리형 주거지와 함께 발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 주거지는 지석묘 처럼 유구의 속성이 황강 혹은 남강 유역에서 조사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정천면 여의곡에서 조사된 발은 당시 생산경제체제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이 시기의 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적이 하천변의 들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조선과 중국 연(燕)의 무력 충돌로 고조선(古朝鮮) 유이민(流移民)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격변의 시기를 맞는다.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로 인해, 지석묘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질서의 재편 과정은 마한(馬韓)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 마한에는 모두 54개의 소국(小國)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영역이 오늘날 경기 서해안·충남·전북·전남 등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소국들은 대체로 현재 군 단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군에도 삼한의 소국과 관련된 세력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양선마을 남쪽 구릉지에서 점토대토기편(粘土帶土器片)이 수습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시기에는 청동기시대의 옹관묘가 한층 발전하여 대형화되고, 여기에 목관묘(木棺墓)와 목곽묘(木槨墓) 등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강한 지역성을 나타낸다.

1989년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농공단지 동쪽 밭에서 무 저장 구덩이를 파다가 우연히 유물이 다량으로 쏟아졌다.³⁷⁾



천천면 남양리 유적 출토유물

35) 申大坤·金圭東, 2001, 앞의 책.

36) 김승욱·이종철·김은정, 2001, 앞의 책.

37) 전북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이방마을 김승남씨가 그 해 무 농사가 너무 잘돼 먹을 것만 집으로 옮기고, 그 나머지는 수확한 밭에 저장하기 위한 무구덩이를 파던 중 우연히 유물을 발견하였다. 당시에 발견된 유물을 곧장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함으로써 이 유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무렵 유물이 출토된 고분을 대상으로 수습조사가 이루어졌으며³⁸⁾, 그 주변지역에는 다른 고분이 더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쳐졌다. 이 유적은 신무산 뜰봉샘에서 발원하여 줄곧 북쪽으로 흐르는 장수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들판의 중앙부에 자리한다. 이 일대를 대상으로 농지정리사업이 이루어져 1997년 전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수습조사³⁹⁾를 실시하여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가 추가로 조사되었다.

모두 5기의 고분은 들판의 강자갈과 모래를 장방형으로 파낸 다음 그 안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천석을 가지고 석곽의 벽석을 조잡하게 쌓았다. 석곽의 내부에는 목관 또는 목곽을 안치한 다음 천정부는 나무로 덮고 그 위에 강자갈을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와 흑도장경호(黑陶長頸壺)를 비롯하여 청동유물인 동경(銅鏡)·세형동검(細形銅劍)·검파두식(劍把頭飾)·동모(銅矛)·동작(銅鑿), 철기류인 철부(鐵斧)·철착(鐵鑿)·철사(鐵鉞), 석기류, 토기류, 관옥(管玉)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그 기능에 따라 토기류와 무기류, 공구류, 장신구류, 의기류 등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동일 고분에서 청동유물과 철기류가 공반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철기류 중 철사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든지, 또한 등대에 새 발 모양의 무늬가 양각된 세형동검이 출토된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초기철기시대의 고분이 처음 조사된 곳은 장수 남양리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조합상을 근거로, 그 시기는 금강 상류지역에서 청동기가 쇠퇴하고 철기류의 비중이 커지는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보았다.⁴⁰⁾ 유구와 유물의 속성은 대전 괴정동⁴¹⁾, 아산 남성리⁴²⁾, 예산 동서리⁴³⁾, 화순 대곡리⁴⁴⁾, 함평 초포리⁴⁵⁾와 밀접한 관련성을 읽을 수 있다. 대전 괴정동을 비롯하여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에서는 금강

38) 池健吉, 1990, 「長水 南陽里 出土 青銅器·鐵器 一括遺物」, 『考古學志』 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39) 尹德香, 2000, 앞의 책.

40) 柳 哲, 1995,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 湖南考古學會.

韓修英, 2001, 「全北地方의 土墳墓」, 『研究論文集』 第1號, 湖南文化財研究院.

41) 이은창, 1968, 「대전 괴정동 청동기문화의 연구」, 『아세아연구』 11-2.

42) 한병삼·이건무, 1977, 「남성리석관묘」, 국립중앙박물관.

43) 지건길, 1978, 「예산 동서리 석관묘출토 청동유물 일괄」, 『백제연구』 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44) 조유전, 1984, 「전남 화순 청동유물 일괄출토 유적」,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45) 이건무·서성훈, 1988, 「함평 초포리유적」,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잘 갖춰진 내륙 교통로를 이용하면 천천면 남양리까지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 영산강 유역에서도 섬진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직선으로 연결된 간선 교통로를 이용하여 산서면에 이르면, 금남호남정맥의 정상부에 위치한 고돛치와 자고개를 넘어 장수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안고원 일대에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내륙 교통로를 이용하여 서로 활발한 교류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란 1970년대 고고학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시대 구분법으로 서력기원 개시 전후부터 300년경까지의 약 3세기 동안의 시기⁴⁶⁾를 말한다. 이 시기를 달리 삼한시대(三韓時代)·부족국가시대(部族國家時代)·성읍국가시대(城邑國家時代)·김해기(金海期)·철시기대(鐵器時代) 후기·삼국시대(三國時代) 전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린다. 고고학계에서는 삼국이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는 300년까지의 시기를 삼국시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설정하고, 이 시기를 ‘원삼국시대’(proto-Three Kingdoms)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청동기의 소멸, 철 생산의 성행, 도작의 발전, 지석묘의 소멸, 김해식토기의 출현 등을 꼽는다. 그리고 이전 시기에 본격적으로 축조된 목관묘·목곽묘·옹관묘 등이 더욱 대형화되며, 여기에 지역성이 강한 주구묘(周溝墓)와 수혈식(竪穴式) 석곽묘(石槨墓)가 새롭게 출현한다.

이 시기의 주거지가 계남면 침곡리 고기마을과 사곡마을 중간지점에서 조사되었다.⁴⁷⁾ 법화산에서 뻗은 산자락의 정상부에서 생활공간과 취사공간이 90cm 가량 떨어진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길이가 630cm에 이른다. 무엇보다 취사공간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장란형토기(長卵形土器) 등 모두 8점의 토기류가 부뚜막 위에 놓였던 그대로 출토되었다. 이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200m쯤 떨어진 산자락의 정상부와 다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장방형 계통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비록 주거지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지만, 주거지의 바닥과 북벽에 잇댄 아궁이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벽구(壁溝)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유구와 유물의 속성이 호남지방의 서부 평야지대보다 오히려 동부 산악지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장수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표조사에서 원삼국시대 분묘유적

46)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47)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6, 앞의 책.

과 생활유적이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양선마을 뒤 남쪽 기슭, 장수읍 동촌리와 두산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자락의 남쪽 기슭, 장수읍 송천리 원송천마을 남쪽에 펼쳐진 구릉지에서 격자문(格子文)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계남면 침곡리와 호덕리에서도 산자락의 정상부와 구릉지에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또한 섬진강 유역에 속한 산서분지를 적셔주는 오수천을 따라 발달한 들판과 구릉지에서도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상당량 수습되었다. 다만 장계면 장계리 문화마을 조성지역의 경우에는 들판 복판에 유적이 자리하고 있어, 그 위치상으로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이 시기의 토기편이 여러 곳에서 수습되어, 원삼국시대에 이르러서도 장수군이 계속해서 중심지역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 13 호분
발굴후 전경

제2절 가야세력의 등장과 그 발전과정

1. 장수군에 밀집 분포된 수혈식 석곽묘



장수 동촌리 가야계 고총
발굴 후 전경

가야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영남 서부지역에서 호남 동부지역에 걸쳐 존재하던 세력집단 또는 국가들의 총칭이다. 가야(伽倻, 加耶, 伽耶)는 달리 가라(加羅)·가량(加良)·가락(駕洛)이라고도 불린다. 가야사는 대체로 5세기 전후한 시기를 경계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⁴⁸⁾ 된다.

전기는 김해지역의 금관가야(金官伽倻)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을, 후기는 고령지역의 대가야(大伽倻)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을 의미한다. 전기의 가야는 경남 김해지역의 구야국(狗倻國)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바닷길로 낙랑(樂浪)과 왜(倭)에 철을 공급하면서 국제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3세기 후반에는 새로이 북방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세력이 더욱 강해졌다. 후기의 가야는 경북 고령지역의 대가야가 중심국으로 성장하였는데, 당시 백제, 신라와 힘을 겨룰 만큼 강한 세력집단으로 성장하였지만, 결국 진흥왕 23년(562) 신라에 복속되었다. 반면에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세력은 백제에 복속되었다.

가야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혈식(竪穴式) 석곽묘(石槨墓)와 부드러운 곡선미를 가진 다양한 토기류에서 찾을 수 있다. 가야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4세기까지 목곽묘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진변한 지역의 정치세력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의 지배층 묘제는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수혈식 석곽묘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⁴⁹⁾ 고령과 함천을 비롯한 경상 내륙지방은, 고구려가 5세기 초 신라를 도와 낙동강 하류지역까지 내려와 경남 해안세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자, 그 잔여세력이 내륙지방으로 이동하여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⁵⁰⁾ 그리고 전화(戰禍)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제철기술과 같은 선진문화의 파급으로 대규모 철산

48) 金泰植, 1993, 『伽倻聯盟史』, 一潮閣

49)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50) 金泰植, 1993, 앞의 책.

지가 개발되면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⁵¹⁾가 마련되었다. 장수군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세력의 경우도 그 발전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짐쳐진다.

장수 침곡리 유적에서 5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장계분지에 속한 마무산 동쪽 기슭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품과 흡사한 토기류가 출토되어⁵²⁾, 향후 장수군에서도 목곽묘가 추가로 조사될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경남 내륙지방과 인접된 장수군은 가야세력의 성장배경이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과 흡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백두대간의 관문인 월성지·육십령·중치 등이 이 지역들과 장수군을 하나의 문화권 혹은 생활권으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을 생산하던 야철지(冶鐵址)의 존재도 빼 놓을 수 없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장계면 명덕리와 대곡리, 계남면 신전리에서 야철지가 발견되었다. 이 야철지들이 언제부터 개발되었는지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고, 아직 문헌기록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분포양상은 수혈식 석곽묘의 분포권과 일치한다.

여태까지 마한 이래로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 인식된 장수군 일대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가야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⁵³⁾ 이곳에 가야세력이 존재한다는 고고학적 단서를 처음 제공해 준 곳이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⁵⁴⁾이다. 장수군과 진안군의 자연경계인 금남호남정맥의 성수산(聖壽山)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이 유적에서 처음 조사된 수혈식 석곽묘는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기 이전까지 금강의 상류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토착세력 집단의 대표적인

51)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계남면 신전리의 야철지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

51)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52) 곽장근·조인진, 2008, 『장수 침곡리 마무산 유적』,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수군.

53) 郭長根,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54) 郭長根·韓修英, 1997, 『長水 三顧里 古墳群』, 群山大學校 博物館.

고분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유구와 유물의 속성이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인 영남지방의 가야고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입증되어, 그 조영집단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아직은 장수군 일대에서 수혈식 석곽묘가 언제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였는가를 상세하게 살필 수 있는 고고학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

1995년 군산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실시된 두 차례의 학술발굴에서 모두 19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이 고분들은 풍화암반층이나 퇴적토를 장방형으로 파내어 묘광(墓廣)을 마련하고 네 벽이 지하에 묻히도록 축조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이다.

유구의 배치상태는 주석곽(主石槨)이 봉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는 소형석곽이 주곽을 감싸듯이 배치되어 다곽식의 구조를 띤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동서로 두었는데, 소형석곽이나 삼족토기(三足土器)가 출토된 고분의 경우에는 남북으로 두었다.

벽석은 모두 천석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 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수직으로 쌓았다. 석곽의 규모나 바닥시설은 고분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남쪽 경사면 하단부에 위치한 고분은 석곽의 길이가 200cm 이하로 모두 강자갈·소형천석·토기편 등을 이용하여 전면에 걸쳐 가지런히 깔았다. 반면에 그 위쪽에 위치한 다른 고분은 모두 풍화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 유적에서 유물은 고배형기대(高杯形器臺)와 저평통형기대(低平筒形器臺)를 비롯한 다양한 기종의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토제품 등 모두 121점이 출토되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과 밭 개간과 오랜 기간 동안 경작활동으로 고분이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어, 유물이 원상대로 보존된 고분은 거의 없었다. 다만 석곽의 양쪽에는 대체로 토기류가 놓이고, 그 중앙에는 철기류와 장신구류가 부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토기류는 삼족토기(三足土器)·단경호(短頸壺)·양이부호(兩耳附壺)·광구장경호(廣口長頸壺) 등 백제토기와 재지계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가야양식 토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한다. 철기류는 철모·철촉·화살통장식 등의 무구류와 철검·철부·도자 등의 농공구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의 조합상은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 고분에서는 광구장경호 등 이곳의 재지계만 출토되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대가야양식 토기류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그 절대량을 차지한다.



1997년 계남면 호덕리에서도 11기의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⁵⁵⁾ 이 고분들은 풍화암반층을 장방형으로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고 네 벽이 지하에 묻히도록 축조되었다.

유구의 배치상태는 주석곽이 봉토(封土)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 소형석곽이 주곽을 감싸듯이 배치된 다곽식(多槨式)이다.

벽석은 대체로 바닥에 대형 판상석을 서로 잇대어 놓고 그 위에 할석과 천석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쌓아 올렸다. 개석(蓋石)은 도굴로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고분의 위치에 따라 장축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주석곽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되게 두었다. 유물은 금제이식을 비롯하여 단경호·장경호·광구·장경호·구형대호·편구호·파수부직구소호·개배 등의 토기류와 철촉·철부·도자 등 40여 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장수군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세력의 하위계층 분묘유적으로 추정된다. 섬진강 유역인 산서면 봉서리에서 2기의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⁵⁶⁾ 이 일대에는 남원시와 장수군의 경계인 성산 북쪽으로 수혈식 석곽묘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장수 봉서리 1호분은 봉토의 상단부에 도굴로 생긴 구멍이를 통해 개석이 약간 노출



산서면 봉서리 금제 이식

55) 全北大學校 博物館·群山大學校 博物館, 2000, 『大田-統營間 高速道路(茂朱-長溪區間) 建設工事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韓國道路公社

56) 윤덕향·한수영·이민석, 2001, 『장수 봉서-척동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장수 봉서리 고분』, 『유적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장수 삼고리 고분군 발굴광경

된 상태였다. 묘광은 생토층을 수직으로 파내어 마련하고 그 안에 장방형의 석곽이 축조되었다. 모두 10매의 개석은 도굴의 피해를 입어 서쪽에서 유실된 2매를 제외하면 다른 것은 원상대로 놓여 있었다.

석곽의 장벽인 동벽과 서벽은 모두 할석을 이용하여 하단부에 큰 할석을 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소형 할석을 가지고 5~6단 높이로 쌓았다. 단벽은 바닥에 할석을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가로쌓기 방식을 적용하여 4단 높이로 축조되었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편평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석곽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되게 동서로 두었다. 유물은 구연부가 일부 파손된 대부장경호(臺附長頸壺)가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372cm, 폭 112cm, 높이 118cm이다.

그런데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유적의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닥에 강자갈이나 천석, 토기편이 깔린 고분은, 그 조성시기가 상당히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의 길이가 200cm를 넘지 않는 삼고리 1~5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토기류는 대가야양식이 섞여있지 않고 오직 기종이 단순한 재지계만 출토되었다. 이 토기류는 대체로 5세기 이전으로 비정⁵⁷⁾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군 일대에서는 대가야의 영향력이 미치기 이전부터 수혈식 석곽묘가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장수군 일대에 밀집 분포된 수혈식 석곽묘가 대가야의 영향을 받아 축조되기 시작한 묘제(墓制)로 그 상한은 고령 지산동에서 중대형 고총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대가야의 영향력이 그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5세기 중엽 이후로 보았다.⁵⁸⁾

금강 상류지역인 진안고원(鎭安高原)에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장수군이다. 장수군에서도 장계분지와 장수분지를 중심으로 수혈식 석곽묘가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다. 금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들판과 구릉지가 펼쳐지거나 교통로가 통과하는 장계천·계남천·장수천·구량천 유역에 더욱 밀집되어 있다.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분포된 것으로 밝혀진 분묘유적은 장수 삼고리를 비롯하여 대략 40여 개소에 이른다.⁵⁹⁾ 종래의 발굴조사를 통해, 수혈식 석곽묘는 봉토의 중앙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57) 金世基, 2002, 「大加耶의 발전과 周邊諸國」, 『大加耶와 周邊諸國』, 高靈郡·韓國上古史學會

58) 朴天秀, 1999,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그 주변에는 주석곽을 에워싸듯이 소형 석곽들이 배치되어, 봉토 내에 여러 기의 고분이 배치된 다곽식으로 밝혀졌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대부분 크기가 다른 천석을 이용하여 가로와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수직으로 쌓았다.

특히 장수 호덕리·동촌리에서는 바닥에 판석형 할석을 수직으로 세워 서로 잇대어 벽석의 하단부를 마련하고 그 위에 가로와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더 올려놓은 고분도 조사되었다.



삼고리의 유물 유개장경호와 고배형기대

끝으로 장수 삼고리 등 가야세력의 하위계층 분묘 유적에서는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토제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류의 조합상⁵⁹⁾은 대체로 5세기 초엽⁶⁰⁾에 유개장경호(有蓋長頸壺)·고배형기대(高杯形器臺) 등 대가야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해 이곳의 재지계와 혼재되다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엽까지는 대가야양식 토기가 상당량을 차지한다. 일단다투창고배(一段多透窓高杯)·통형기대(筒形器臺) 등 일부 기종을 제외하면, 모든 대가야양식의 토기류가 망라되어, 이곳의 가야세력이 대가야와의 긴밀한 교류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삼족토기·무투창고배·직구호·병형토기 등 백제토기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수혈식 석곽묘에 부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장수군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은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⁶²⁾

그럴 가능성은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분포양상과 그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2. 가야세력의 지배자 무덤인 가야계 고총

고총(高塚)이란 봉토의 평면형태가 호석(護石)이나 주구(周溝) 등에 의해

59)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앞의 책.

60) 趙仁振, 2001, 『全北 東部地域 石槨墓 出土 土器 研究』-長頸壺와 器臺를 中心으로-, 全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1) 李熙濤, 1995, 『토기로 본 大伽倻의 圈域과 그 변遷』, 『伽倻史研究』, 慶尙北道.

62)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竪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湖南考古學報』 25, 湖南考古學會.



장수 삼봉리 1호분 발굴 후 전경

원형 혹은 타원형의 분명한 분묘단위를 갖추고 있는 대형고분을 말한다.⁶³⁾ 고총은 또한 성곽과 함께 국가단계의 정치체의 출현을 말해주는 고고학적 근거이자 신라와 가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수장층(首長層)에 의해 조영된 분묘군으로 알려져 있다. 고총의 봉토는 이전 시기의 고분과 양적으로 비교할 때 실제로 현저하게 커지거나 높게 보이려는 축조

의도를 담고 있다. 고총은 또한 봉토 자체가 강한 과시성을 띠면서 이전 시기의 고분에 비해 일정한 양적 변화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봉토 축조에 동원된 노동력으로 볼 때 피장자의 권력이 이전 시기보다 훨씬 커졌음을 암시해 준다. 그리하여 고총의 존재여부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가장 진솔하게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가 되고 있다. 동시에 고총의 규모와 기수는, 그 조영집단⁶⁴⁾의 존속기간이나 피장자의 사회적 위상을 반영하는 요소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고학적 의미가 담긴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장수군 일대에 100여 기 정도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⁶⁵⁾ 좀 더 구체적으로 고총의 분포양상을 정리하면, 장계분지에는 장계면에서 25기와 월강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2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 등 모두 60여 기의 고총이 있다.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장수읍 소재지까지 뻗은 산줄기와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의 정상부에 40여 기와 팔공산(八公山) 서남쪽 대성고원(大成高原)에도 5기 내외의 고총이 남아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인 금강 상류지역에서 가야계 고총은 장계분지와 장수분지 등 장수군 일대에만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오래 전 농경지로 개간되었거나 민묘구역 내에 고총이 자리하여 본래 장수군 일대에는 이보다 더 많은 고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사실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아직은 그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토의 규모와 고총의 기수 등 외형적인 속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63) 李熙濤, 1997, 『新羅 高塚의 특성과 의의』, 『嶺南考古學』 20, 嶺南考古學會.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春秋閣

64) 朴升圭, 2000, 『考古學을 통해 본 小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65)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3, 『長水郡의 古墳文化』, 長水文化院.

장수군에서 장계분지는 가야세력의 최대 중심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군에 밀집 분포된 가야계 고총은 산줄기의 정상부에만 자리하여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의 고총은 백화산(白華山)과 마봉산(馬峰山)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정상부에만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운봉고원(雲峰高原)에 속한 남원 월산리(月山里) 고분군의 경우처럼 지형이 완만한 구릉지에 입지를 둔 가야계 고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산줄기 혹은 산자락의 정상부에 고총이 입지를 둔 것은,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커 보이게 함으로써 권력과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⁶⁶⁾ 지금까지 장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야계 고총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 사진

장수 삼봉리 고분군은 장계분지의 동남쪽에 위치한 백화산(白華山)에서 장계천까지 뻗은 산자락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육십령(六十嶺)이 바로 동쪽에 자리하여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금강 상류지역에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여러 갈래의 교통로가 장계분지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문화유적총람』에는 “토만두형 고분(土饅頭形古墳) 25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 9기는 발굴되고 천연석으로 된 장방형 호석만이 남아 있다”고 기록⁶⁷⁾되어 있다.

현재 장계면 삼봉리 남산마을과 계남면 호덕리 갈평마을 중간 산자락의

66) 金世基,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伽耶史研究』, 慶尙北道.

67) 文化財管理局, 1975, 『文化遺産總覽』.

68) 곽장근·조인진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장수분지와 장수 동촌리 고분군

정상부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이상 되는 2기의 가야계 고총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 유적의 성격과 향후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군산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봉토가 이미 유실된 1기의 고분만을 대상으로 학술발굴⁶⁸⁾이 이루어졌다.

장수 삼봉리 1호분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동서길이 21m, 남북길이 13m이다. 봉토(封土)는 주석곽의 개석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 민묘구역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부분 삭평되었다. 북쪽에 인접된 고총과는 107cm 내외의 간격을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는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은 생토암반층을 장방형으로 파내어 마련되었으며, 봉토의 중앙에는 주석곽이 자리하고 남쪽에 2기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주석곽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수직으로 벽석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은 개석은 중앙부에 1매만 남아있다. 순장곽 사이에는 장란형토기를 잇대어 놓고 그 내부에서 고배형기대편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구연부가 파손된 상태로 유개장경호와 교구·철모·철촉·도자·격쇠 등이 섞인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주석곽 바닥에서 위신재인 환두대도(環頭大刀)가 부장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석곽의 규모는 동서길이 462cm, 남북폭 96cm, 높이 142cm이다.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동촌마을 남쪽에 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장수분지에는 장계분지 못지않은 강력한 가야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남호남정맥의 사두봉(蛇頭峰)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마봉산(馬峰山)을 지나 서북쪽으로 장수군 장수읍 소재지까지

뺨어 내렸다. 이 산줄기는 가파르게 흘러내리다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와 두산리의 경계를 이루는 하단부에 이르러 완만한 지형으로 바뀐다. 이 산줄기에서 다시 몇 갈래의 산자락이 북쪽으로 갈라졌는데, 산줄기와 산자락의 정상부에 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자리하고 있다. 봉토는 직경 10~20m 내외로 그 크기가 다양하며, 봉토의 정상부에는 여러 개의 도굴 구덩이가 웅덩이처럼 패여 있다. 봉토에는 소나무가 숲을 이루거나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며, 몇 년 전에는 도로개설과 토석채취장 개발로 일부 고총이 유실되었다. 2004년 학술발굴⁶⁹⁾에서 14기의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와 2기의 골호(骨壺) 등 1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고분은 풍화암반층 혹은 퇴적층을 파내어 묘곽을 마련하고 그 안에 주로 천석을 가지고 장방형의 석곽이 축조되었다. 석곽 위에는 장방형 석재를 가지고 본래 개석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는데, 개석은 도굴로 유실되어 원상대로 보존된 것이 없었다. 산자락의 정상부에 자리한 6호분·7호분·8호분의 경우에는 봉토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었다. 벽석은 대체로 가로와 모로 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수직으로 쌓았는데, 2호·3호·4호는 장방형 석재를 수직으로 세워 서로 잇대어 벽석의 하단부를 마련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되게 동서(東西)로 두었지만, 주석곽의 주변에 배치된 부곽은 정형성을 보이지 않았다. 석곽의 바닥면은 풍화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7-2호의 경우만 유일하게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판석형 천석으로 전면에 걸쳐 깔았다. 이 유적에서 유물은 금제이식을 비롯하여 토기류와 방추차, 철기류 등 100여 점 정도 출토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과 장기간에 걸친 경작활동으로 유물이 부장방법과 유물의 조합상이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토기류는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광구장경호(廣口長頸壺) 등 이곳의 재지계로 분류된 토기류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직구호·무투창고배·병형토기 등 백제토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봉토는 그 가장자리에 두른 호석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자락의 정상부에 입지를 둔 6호분·7호분·8호분은 봉토 내에 두기 이상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유구의 속성은 지구별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유물의 조합상은 지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봉토의 직경이 20m 이상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고총이 유적의 중앙부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위에서 살펴 본 유적들은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 지역

69) 광장근·조인진 2005, 앞의 책.



장수 봉서리 고분군 출토
광구장경호

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세력의 수장층 분묘유적으로 추정된다. 장수 삼봉리는, 봉토의 평면형태가 동서(東西)로 긴 장타원형으로 북쪽에 인접된 고총과는 일정한 간격을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는 호석(護石)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토의 중앙에는 주석곽이 자리하고 동남쪽과 서남쪽에 한 기씩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으로 이 순장곽들 사이에 장란형토기를 잇대어 놓았다. 장수 동촌리의 경우도 산줄기의 정상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다음, 봉토의 중앙에 자리한 주석곽을 에워싸듯 1~3기씩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봉토의 평면형태도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그 가장자리에는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토의 평면형태와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은 유구의 속성은 고령 지산동⁷⁰⁾, 합천 반계제⁷¹⁾·옥전⁷²⁾ 등 백두대간 동쪽의 가야계 수장층 분묘유적들과 구별되는 장수군만의 강한 지역성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금제이식과 토기류, 철기류, 방추차 등으로 그 기종이 매우 다양하다. 토기류는 대가야양식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장수군의 재지계로 분류된 광구장경호와 흡사한 기종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삼봉리 주석곽에서 위세품인 환두대도(環頭大刀)가 부장된 흔적과 목관에 사용됐던 껍쇠가 출토되어, 이 고총의 피장자가 가야세력의 지배자인 수장층으로 추정된다.⁷³⁾ 장수군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은 지정학적인 이점과 교통의 중심지, 철산개발⁷⁴⁾ 등의 원동력을 발판으로 10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을 조영하였지만, 백제가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육십령(六十嶺)을 넘는 간선 교통로를 따라 가야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야계 고총과 그 하위계층의 분묘유적에서 백제토기의 본격적인 등장을 근거로, 그 시기는 잠정적으로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짐쳐진다.

장수군 일대에 1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조영한 가야세력이 어

70)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 博物館

71) 김정완·임학중·권상열·손명조·정성희, 1987, 『합천반계제고분군』, 경상남도·국립진주박물관.

72) 趙榮齊·柳昌煥 외, 1995, 『陝川玉田古墳群』, 慶尙大學校 博物館.

73) 郭長根, 2004, 『湖南東部地域の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 20, 湖南考古學會.

74)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무령고개·명덕리 육십령,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 계곡, 계남면 신전리,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주천면 대불리 학산동 계곡에 아철자와 관련된 구전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철재편이 부분적으로 쌓여 있다.

면 과정을 거쳐 백제에 복속되었는지, 언제부터 장수군 일대가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백제 때 설치된 행정치소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이곳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백제 때 장수군 장계면에는 백이[해]군(伯伊[海]郡), 장수읍에는 우평현(雨坪縣)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섬진강 유역인 장수군 산서면과 임실군 지사면 일대에는 거사물현(居斯勿縣)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백제의 진출과정과 가야세력의 복속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록은 더 이상 없다. 다만 종래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백제의 진출과정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고고학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삼국시대 때 백제의 행정치소가 설치된 장수읍과 장계면, 산서면 일대에는 백제와 관련된 분묘유적이 유난히 밀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수 삼고리 7호에서 삼족토기(三足土器)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남쪽 기슭 중단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구의 장축방향은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들과 직교되게 남북으로 두었다. 삼족토기는 회청색 경질토기로 기형이 약간 뒤틀려 배신(杯身)이 다소 깊고 높지 않은 드림부는 수직에 가까운 구연부로 마감되었다. 이 토기는 배신이 깊지 않고 다소 편평하여 논산 모촌리⁷⁵⁾·익산 웅포리⁷⁶⁾ 출토품과 속성이 거의 흡사하여 그 시기는 대체로 6세기 초엽으로 비정되었다. 또한 장수 동촌리 9호에서 직구호(直口壺)가 대가야 양식 토기류와 섞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좁은 저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넓어져 견부(肩部)에서 동최대경(胴最大徑)을 이루고 있으며, 파상문이 시문된 견부에는 1조의 돌대가 돌려지고 직립된 구연부로 마감되었다. 충남 보령 구룡리⁷⁷⁾와 논산 육곡리⁷⁸⁾, 남원 척문리⁷⁹⁾ 횡혈식 석실분 출토품과 속성이 흡사하여 그 시기는 대체로 6세기 초엽으로 비정되었다.

이외에도 장수군에서 백제계 횡혈식(橫穴式) 석실분(石室墳)이 발견되었

75) 安承周·李南奭, 1993, 『論山茅村里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公州大學校 博物館

76) 崔完奎, 1995, 『益山 熊浦里 百濟古墳群』, 財團法人 百濟文化開發研究院·圓光大學校 博物館

77) 安承周, 1977, 『保寧九龍里 百濟古墳과 出土遺物』, 『百濟文化』10,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78) 安承周·李南奭, 1988, 『論山表井里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公州大學校 博物館

79) 全榮來, 1981, 『南原, 草村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全北遺跡調査報告』第12輯, 韓國文化財保護協會 全北道支部.

다. 예컨대 장수읍 동촌리·두산리, 장계면 무농리, 천천면 남양리, 산서면 하월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장수읍 동촌리에는 ‘몰메똥’이라 불리는 남쪽 기슭에 한 매의 대형 판석형 석재를 가지고 북벽을 축조한 횡혈식 석실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시기는 백제후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계면 무농리 수락봉 남쪽 기슭에는 대형 개석이 노출된 횡혈식 석실분과 그 주변에는 다른 고분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분묘유적에서도 고분의 위치와 벽석의 축조방법, 석실의 평면형태, 장축방향 등 유구 속성이 횡혈식 석실분과 상통하는 고분이 발견되었다. 특히 장수읍과 장계면, 산서면 일대에는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한층 밀집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문헌의 내용대로 백제의 행정치소(行政治所)로 삼국시대 때 거점 지역을 이룬 곳으로 추정된다.

장수군에서도 백제계 횡구식(橫口式) 석곽묘(石槨墓)가 조사되었다. 하나는 장수읍 동촌리 고충군에서 동쪽으로 1.7km 가량 떨어진 ‘몰메똥’으로 불리는 산의 남쪽 기슭에서 1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⁸⁰⁾ 벽석은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내경(內傾)되게 쌓고, 그 위에는 개석을 올려놓았으며, 남쪽 부분이 유실된 유구는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다. 다른 하나는 계남면 침곡리 남쪽 기슭에서 횡구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⁸¹⁾ 이 고분은 호석(護石)이 둘러진 봉토의 중앙에 풍화암반층을 장방형으로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고 그 안에 대부분 할석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내경되게 벽석을 쌓았다. 개석과 벽석 사이에는 소형 할석을 가지고 정교하게 메운 다음 진흙을 발랐으며, 바닥면에는 강자갈을 가지고 아주 정연하게 깔았다. 비록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이 고분들은 백제후기에 널리 유행한 횡구식 석곽묘의 속성을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시기도 백제 후기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수군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은 그물처럼 잘 갖춰진 교통로와 교역망을 바탕으로 6세기 초엽까지 가야계통 국가단계의 정치체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로는 장수군의 강한 지역성과 독자성이 입증된 100여 기의 가야계 고충이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威身財)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가야세력의 수장층 혹은 지배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진 상당

80)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앞의 책.

81)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앞의 책.

량의 꺾쇠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장수 삼고리·호덕리·침곡리·봉서리 등 가야세력의 하위계층 분묘유적에서 6세기 초엽까지도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백제의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 간선 교통로를 따라 섬진강 상류지역과 전북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 일대로 진출하여 대규모의 축성(築城)과 봉수체제(烽隧體制)를 운영하였지만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인 백제의 무령왕(武寧王)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제 3 절 장수군 산성과 봉수의 분포양상과 의미

1.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산성과의 관계

성곽(城郭)이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흙이나 돌로 구축한 방어시설로 내성과 외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성곽은 다시 축성재료 성벽의 축성재료⁸²⁾, 거주주체⁸³⁾, 지형⁸⁴⁾, 지리적 위치⁸⁵⁾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부른다.

성곽이 위치하는 지형에 따라 산성·평지성·평산성으로 구분되는데, 산성은 삼국이 고대국가체제를 갖추고 정복사업이 본격화되는 4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축성되었다. 삼국시대 때는 각 국가의 직접적인 마찰과 대립과 이해가 상충되는 곳에 산성이 많이 축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통상 혹은 전략상 요충지로 교통로가 통과하는 길목이나 고갯길에 한눈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산성이 주로 자리한다. 이를 증명해 주듯이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은 백제와 신라와의 국경지역인 전북 동부 산악지대와 낙동강 서안을 따라 집중적으로 산성을 쌓았다.

삼국시대부터 축성되기 시작한 산성은 고려, 조선시대까지 널리 유행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 초기에 759개소의 성곽이 있었는데, 산성이 182개소로 가장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장수군과 그 주변지역의 산성이 간헐적으로 학계에 알려

82) 성벽의 축성재료인 나무, 흙, 돌, 전돌 등에 따라 목책성, 토성, 석성, 토석혼축성, 전축성 등으로 나뉜다.

83) 누구를 위해 성곽이 조성되었느냐에 따라 도성, 왕성, 황성, 재성, 행재성, 읍성 등으로 세분된다.

84) 성곽이 위치하는 지형에 따라 산성, 평지성, 평산성 등으로 구분된다.

85) 이 경우에는 국경성, 해안성, 강안성, 내륙성 등으로 분류된다.

지다가 그 분포양상이 개략적으로 파악된 것은 70년대 중반이다.⁸⁶⁾ 이를 바탕으로 80년대에는 시·군별로 문화재의 실태를 한층 정확히 파악하여 그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효과적인 보존·관리에 큰 목적을 두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장수군 일대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장수 침령산성⁸⁷⁾과 함미산성⁸⁸⁾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산성의 축성 시기와 축성주체가 파악되었다.

그 결과 50 여개소의 산성이 금강 상류지역인 장수군과 그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야계 분묘유적과 산성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면서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가야계 고총 주변에는 그 규모가 큰 포곡식(包谷式) 산성이 자리한다. 장수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강하게 담고 있으면서 가야계 고총 주변에 자리한 산성의 축성방법과 그 보존 실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장계분지에서 가야계 고총과 산성과의 관계이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육십령(六十嶺) 바로 서쪽에 인접된 천혜의 자연분지로서 선사 시대 이래로 줄곧 전략상 요충지와 교통의 중심지⁸⁹⁾를 이루었다. 장계분지 동남쪽에 우뚝 솟은 백화산(白華山)에서 북쪽 혹은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정상부에 봉토의 직경이 10~20m 내외되는 60 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남아있다.

장수군 일대 봉수지표 수습토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화산에서 장계천까지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는 본래 40여 기의 고총들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과 대규모 민묘구역 조성하는 과정에 봉토가 대부분 유실되어, 현재 2기의 고총만 남아있다. 그리고 장계분지의 중앙을 동서(東西)로 가로지르는 산줄기 정상부에도 30여 기의 고총이 남아있는데, 본래 더 많은 고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⁰⁾

86) 文化財管理局, 1975, 앞의 책.

87) 전북문화재연구원a, 2005, 『장수 침령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장수군

88) 전북문화재연구원b, 2005, 『장수 함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장수군

89) 지금도 국도 19번과 26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장계분지에서 교차한다.

90) 한국동란 때 산줄기 정상부에 대규모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 봉토가 유실 내지 훼손된 경우까지 포함시킨다면, 본래 30여 기 이상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화산에서 서북쪽으로 갈평마을 부근까지 뺏어 내린 두 갈래의 산줄기 정상부에도 30여 기의 크고 작은 고총들이 남아있다.



침랑산성

그런데 장수 삼봉리·월강리⁹¹⁾·호덕리⁹²⁾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갈평마을 동남쪽에 자리한다. 백화산에서 갈평마을 부근까지 뺏아 내린 산자락의 정상부에 3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분포되어 있다. 1999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공사구역에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13기의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고분군 서쪽에 장수군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장수 침랑산성(砧嶺山城)이 있다. 금남호남정맥에 우뚝 솟은 장안산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의 자연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북쪽에는 방아다리재와 장수 침곡리 봉수가 있다. 이 산성은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남북의 골짜기를 막고 동쪽에 돌출된 산봉우리를 휘감은 포곡식 산성이다. 성안에는 넓은 대지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서 그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건물지로 추정된다. 성벽은 남쪽과 북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너져 내렸으며, 현재 보존된

91) 장수 삼봉리 고분군에서 서북쪽으로 350m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장계천과 평행되게 동서로 뺏은 산자락의 정상부에 봉토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2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양쪽 기슭에 봉토가 이미 유실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92)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갈평마을 동남쪽에 자리한다. 백화산에서 갈평마을 부근까지 뺏아 내린 산자락의 정상부에 3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분포되어 있다. 1999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공사구역에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13기의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동남쪽 성벽의 높이는 7.7m이다. 성벽의 축성방법과 성돌의 제작방법이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전주 동고산성과 상통한다. 지금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상당량 수습되었는데, 토기편 중에는 밀집과상문이 정교하게 시문된 가야토기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장수 동촌리 고분군과 함미산성이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장계분지의 남쪽에 장수분지가 있는데, 이곳은 금강의 발원지인 신무산 뜯봉샘이 자리하여 금강의 최상류를 이룬다. 장수분지 동남쪽에 우뚝 솟은 마봉산(馬峰山)에서 장수분지 한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 봉토의 직경이 10~20m 내외로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한 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자리한다.

이 고총들은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고, 봉토 내에 2기 이상의 순장곽(殉葬槨)으로 추정되는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토기류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개장경호는 동쪽과 서쪽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것이 유물의 속성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어 40여 기의 고총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유적에서 서남쪽으로 7km 가량 떨어진 팔공산(八公山) 남쪽에는 금남호남정맥의 큰 고갯길인 자고개[尺峙]가 있는데, 그 북쪽에 장수 함미산성(含米山城)과 장수 원수봉 봉수가 있다.

그런데 금남호남정맥의 큰 고갯길인 자고개는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서 섬진강 중류지역을 횡단하여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려면 대부분 넘어야 했던 길목이다. 이 고갯길 북쪽에는 남쪽 골짜기를 막은 포곡식인 장수 함미산성과 그 북쪽 산봉우리에 장수 원수봉 봉수가 있는데, 이 산성은 문헌기록⁹³⁾에도 자주 등장한다.

성벽은 서북쪽과 남쪽 일부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뿐이며, 다른 부분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성벽의 하단부는 대형의 장방형 돌을 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바닥석보다 작은 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산성의 규모는 둘레 430m, 높이는 외측 5m 내외이며, 내측 1.5m 정도이다. 이곳에 군량미(軍糧米)를 보관하였다고 하여 달리 ‘함미성’이라 불리고 있으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성의 내부에는 성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이 사용할 물을 지하로 급수하던 수로관시설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상당량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수습되었는데, 토기편 중에는 밀집과상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93) 『東國輿地勝覽』에는 ‘聖迹山城石築周九百七十尺 高十尺 今半頽廢’라고, 『文獻備考』에는 ‘聖壽山城 在西南十五里石築 周九百七十尺 今廢’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산성의 동쪽 기슭 중단부에는 ‘왕바위’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다. 이곳까지 행차한 왕이 바위에 올라 잠시 쉬어 갔다고 해서 구전으로 ‘왕바위’라고 전해진다.⁹⁴⁾ 어느 나라 왕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곳까지 행차했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후백제(後百濟)의 견훤(甄萱)이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 즉, 견훤이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의 도읍인 전주를 방어할 목적으로 백두대간(白頭大幹)과 금남정맥(錦南正脈)을 따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개축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는, 이 산성들이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다듬은 성돌이나 성벽의 축성방법이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전주 동고산성과 흡사한 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야토기편과 백제토기편, 삼국시대 기와편이 성돌과 성돌 사이에 끼여 있는 점도 그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러므로 이 산성들은 진안고원과 운봉고원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세력에 의해 처음 축성된 이후 백제와 후백제 때 다시 개축된 것이 아닌가 싶다.



왕바위

94) 이런 사실은 2005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 주민들의 제보로 밝혀졌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가야계 고총과 인접된 곳에 포곡식 산성이 자리한다. 현재 6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된 장계분지의 서쪽에는 금강 상류지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장수 침령산성이 있다. 금남호남정맥의 장안산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의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줄기의 끝자락으로 이곳에서는 장계분지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장수분지에도 봉토의 직경이 10~20m 내외되는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들로만 구성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있다. 이 유적에서 서남쪽으로 7km 가량 떨어진 금남호남정맥의 큰 고갯길인 자고개[尺峙] 북쪽에 장수 함미산성이 있다. 이 산성들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는데, 토기편 중에는 밀집파상문이 정교하게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10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을 조영했던 가야세력에 의해, 이 산성들이 처음 축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2. 봉수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

봉수는 봉(烽:횃불)과 수(燧: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제도이다. 우역제(郵驛制)와 함께 신식우편과 전기통신이 도입되기 이전의 전근대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다. 따라서 근대의 통신시설인

전화기가 도입된 1894년 이전까지 백성들의 생업안정에도 봉수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특히 역마나 인편보다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고 신속한 효율성을 발휘하여 지방의 급변하는 민정상황이나 국경지역의 적의 동태를 상급기관인 중앙에 연락하였다. 봉수제(烽臺制)는 일반 국민들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나 서신을 전달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 봉수대의 수는 약 610개소였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제주목의 63개를 합치면 모두 673개소에 달하였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장수군과 그 주변지역에는 많은 봉수가 자리하고 있다⁹⁵⁾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⁹⁶⁾, 현재 80여 개소의 봉수가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 밀집 분포된 것⁹⁷⁾으로 파악되었다.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를 휘감는 산줄기에 20여 개소의 봉수가 있다.⁹⁸⁾ 이곳은 100여 기의 가야계 고층이 밀집 분포된 곳으로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자연경계를 이룬다. 백두대간의 남덕유산에

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장계분지의 북쪽을 감싸준다. 이곳의 사방을 감싸주는 산줄기를 따라 20여 개소의 봉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봉수들은 주로 장계분지와 장수분지로 통하는 내륙 교통로가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자리한다. 그리고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의 자연경계인 산줄기에도 장수 봉화산 봉수가 있는데, 그 북쪽에는 방아다리재를 사이에 두고 장수 침령산성이 있다. 특히 장계분지의 중심부에 장수 백화산 봉수가 있는데, 이 봉수에서 장계천까지 북쪽 혹은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에는 가야계 고층으로만 구성된 장수 삼봉리·월강리·호덕리 고분군이 있다. 이 가야계 고층으로만 구성된 가야세력의 수장층(首長層) 분묘유적을 여러 겹으로 에워싼 분포양상을 보이면서 봉수들이 배치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에도 10여 개소의 봉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금강과 섬진강, 낙동강의 분수령인 장수 영취산 봉수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장

영취산 봉수



수문령

95)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長水郡의 山城과 烽臺』, 長水文化院.

96) 조명일 2004,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97) 趙明一, 2009, 「全北地域 烽臺의 分布樣相과 性格」, 全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98)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앞의 책.

수 장안산 봉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장수군을 비롯하여 운봉고원이 한눈에 조망된다. 금강과 섬진강으로 물의 운명을 갈라놓는 수분령(水分嶺)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는 장수 사두봉과 서쪽에는 장수 신무산 봉수가 있다. 장수분지에서 섬진강 중류지역을 가로질러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려면 꼭 넘어야 했던 자고개[尺峙] 북쪽에는 장수 합미산성과 장수 원수봉 봉수가 있다.

그리고 장수군과 진안군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장수분지와 마령분지를 연결해 주는 금남호남정맥의 신광치 북쪽 산봉우리에도 장수 성수산 봉수가 있다. 아직은 이 봉수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수군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주요 봉수들의 보존실태와 그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육십령 북쪽에 자리한 장수 할미봉 봉수⁹⁹⁾이다. 이 봉수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과 경남 함양군 서상면 경계로 그 주변지역에 배치된 산성과 봉수가 한눈에 조망된다. 그리고 서쪽으로 4km 남짓 떨어진 장계분지에는 6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밀집된 장수 삼봉리·월강리·호덕리 고분군이 있다. 면담조사 때 “불을 피워 신호

를 주고받는 봉수가 있다”고 주민들이 제보해 주었다. 이 산봉우리의 동쪽과 서쪽은 자연 암반층으로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과 북쪽에 석축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산봉우리 정상부에 직경 20cm, 깊이 10cm로 파놓은 구멍을 제외하면, 아직 봉수와 직접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지표조사 때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 출토품과 흡사한 회청색 경질토 기편과 단조철부(鍛造鐵斧)가 수습되었다. 장수군을 경유하여 남강 혹은 황강 유역으로 진출할 때 대부분 넘어야 했던 육십령의 상황을 조망할 목적으로 그 양쪽에 봉수가 설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금남호남정맥의 분기점에 장수 영취산(靈鷲山) 봉수¹⁰⁰⁾가 있다. 금강과 섬진강, 낙동강의 분수령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과 변암면, 경남 함양군 서상면 경계를 이룬다. 영취산 정상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처럼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규모는 남북길이 18.7m, 동서폭 6.5m 내외이다.

육십령

99)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앞의 책

100)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앞의 책.

101)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앞의 책.

이 산의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3m 가량 떨어진 곳에 직경 2m 내외되는 원형의 석렬이 노출되어 있는데, 석렬 내부에서 상당량의 숯이 검출되었다. 이 산봉우리의 9부 능선에는 할석만을 가지고 한 바퀴 돌린 테괴식 석성이 남아있는데, 성벽은 가파른 자연 경사면을 따라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산의 정상부와 서쪽 기슭에서 회백색 경질토기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백두대간과 영취산을 소개하는 안내판과 안내석, 안내목, 산악인들이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돌탑이 산 정상부에 있다. 금강과 섬진강을 이어주는 무령고개, 경남 함양군 서상분지 일대의 동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영취산 정상부에 봉수가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치재



백두대간 큰 고갯길인 치재 남쪽 산봉우리에 봉화산(烽火山) 봉수¹⁰⁾가 있다. 전북 장수군 변안면 노단리와 남원시 아영면 성리 경계로 달리 '치재'라고도 불린다. 남강 상류지역인 운봉고원에 80여 기의 가야세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된 남원 월산리·두락리 고분군이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진주, 산청, 함양 등 서부경남지역 일대에서 남원과 임실을 경유하여 전주방면으로 나아갈 때 대부분 넘었던 관문으로 서쪽 기슭에는 남원 치재리 토성이 있다.

이 고개에서 서남쪽으로 300m 가량 떨어진 산봉우리에 봉화산 봉수가 있는데, 산봉우리의 정상부에는 상당량의 할석이 노출되어 있다. 이 석재들 사이에서 밀집파상문과 점열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진안고원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서 시작된 남원봉수로의 중간 경유지로 치재와 북성이재를 넘던 사람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봉수가 조영된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백두대간의 관문인 북성이재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봉화산 봉수와 남쪽에는 아막성(阿莫城)이 자리한다.

장안산 봉수



금남호남정맥 산줄기에 우뚝 솟은 장수 장안산(長安山) 봉수¹⁰²⁾이다. 장수 영취산 봉수에서 서남쪽으로 3km 가량 떨어진 산봉우리로 북쪽의 장계분지와 서북쪽의 장수분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백두대간 넘어 운봉고원(雲峰高原) 일대도 잘 조망되어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 70년대 산봉우리 정상부에 헬기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깊이로 제토작업이 이루어져 본래의 지형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북쪽과 서북쪽을 뺀 산봉우리 정상부에 석축을 한 바퀴 돌렸는데, 그 규모는 남북길이 27.4m, 동서길이 18.5m이다. 모두 할석만을 가지고 쌓은 석축은 동쪽과 서쪽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사면을 따라 무너져 내렸다.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에 상당량의 할석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렸는데, 본래 봉수군이 생활하던 건물지의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대호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되는 명희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자리한 장수 신무산(神舞山) 봉수¹⁰³⁾이다. 금남호남정맥의 큰 고갯길로서 금강과 섬진강으로 물의 운명을 갈라놓는 곳으로 수분령 서북쪽에 자리한다.

이 일대 사람들이 마을의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신무산 여러 곳에서 봉화를 올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뜬 것과 흡사하여 ‘뜬봉샘’을 달리 ‘뜸봉샘’이라고도 불린다.

이 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진안 용담댐에서 잠시 머물다가 충북 서남부를 흘러 옥천군 동쪽에서 보청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남쪽에서 미호천을 합

102)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앞의 책.

신무산 뜬봉샘

103)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앞의 책.

류하여 대전·공주·부여·강경 등을 거쳐 군산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금강의 유래는 물이 흐르는 물줄기의 모습이 마치 비단처럼 곱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강과 섬진강 유역을 곧장 연결해 주는 간선 교통로가 지나는 수분령을 통과하던 사람들을 조망할 목적으로 이곳에 봉수가 조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수군과 그 주변지역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된 80여 개소의 봉수는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의 분포권과 대체로 중복된, 특히 1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된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곳을 방사상으로 에워싸고 있다.

더욱이 산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며 장계분지와 장수분지로 통하는 여러 갈래의 내륙 교통로가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 말의 봉수선로(烽隧線路)가 대체로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는 장수군과 그 주변지역에 봉수가 집중 분포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삼국시대 토기편보다 그 시기가 늦은 어떤 유물도 봉수에서 수습되지 않은 것은, 이 봉수들의 설치시기와 설치주체를 추론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봉수의 분포양상과 유물의 속성만을 기준으로 추론한다면, 이 봉수들의 설치주체는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세력과의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